

李대통령 지지율 ‘역대 최저’ 1주새 5%p 급락 지니포럼이 그리는 ‘금융특화’ 전북

지지율 55% 기록 취임 후 최저치
민주당 지지도 30%대 올해 최저
“대법원장 축출 시도 역풍” 분석
긍정평가 이유는 ‘외교·경제·소통’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로 급락했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30%로 떨어졌다.

26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전주보다 5%p 떨어진 55%로 나왔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주 2%p 반등했으나, 이번 주에 크게 추락하면서 취임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3%p 상승한 34%,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1%), 성향 진보층(82%), 40·50대(70% 내외)에서, ‘잘 못한다’는 국민의힘 지지층(77%)과 보수층(63%)에서 두드러졌다. 중도층은 60%가 긍정적이었고, 무당층에서는 긍정(40%·38%) 격차가 크지 않았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는 (이하 ‘가중적용 사례수’ 기준 550명, 자유응답) ‘외교’(20%), ‘경제/민생’(15%), ‘소통’(9%), ‘전반적으로 잘한다’(8%), ‘추진력/실행력/속도감’(5%), ‘전 정부 극복’, ‘민생회복지원금’, ‘열심히 한다/노력한다’(이상 4%) 순으로 나타났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 이유는(344명, 자유응답) ‘외교’(14%), ‘독재/독단’(11%),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9%), ‘경제/민생’, ‘전반적으로 잘못한다’(이상 7%), ‘진실하지 않음/거짓말’, ‘친중 정책’, ‘대법원장 사퇴 압박/사법부 흔들기’(이상 5%), ‘정치 보복’(4%)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한국갤럽은 “이번 주 부정 평가 이유 면면으로 미루어 집착하건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진실 공방, 내란재판부 변경 등 여당 주도 사안들이 대통령 평가에도 반영된 듯하다”면서 민주당의 독주로 이 대통령이 역풍을 맞은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함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전주보다 3%p 하락한 38%로 30%대로

추락했다. 이는 올 들어 최저치다.

서울은 35%, 부산울산경남에선 29%로 급락했다.

국민의힘은 전주와 동일한 24%였고,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각각 3%, 진보당 1%, 이외 정당/단체 1% 등의 순이었으며,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은

30%로 늘어났다.

민주당 지지도는 8월 셋째 주 44%에서 이번엔 38%가 됐고, 같은 기간 국민의힘은 평균 24%로 거의 변함없으며, 무당층 크기는 22%에서 30%로 늘었다.

양당 대표에 대해 물어본 결과 더불어민주당 정세재 대표에 대해서는 43%가

긍정, 44%가 부정 평가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는 30%가 긍정, 51%가 부정 평가했다.

이번 조사는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포인트, 응답률은 11.4%다.

/서울=김영목기자



전북도 정책브랜드 자문단 위촉식

전북도가 정책 홍보의 전문성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브랜드 자문단을 지난 26일 출범했다. (관련기사 2면) <사진=전북도>

‘난기류’ 만난 새만금공항 건설…전북 ‘균형발전 박탈감’

23개 사업 중 유독 지연 심화
법원 판결로 11월 착공 불투명
법적·행정 리스크 착공발목잡아

새만금국제공항이 최근 기본계획 취소 판결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된 가운데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형평성 문제가 집중 제기된다. 전국 23개 사업 중 유독 새만금국제공항만 지연 위기에 처하면서 전북 지역의 상대적 박탈감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2019년 1월 정부가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총 23개 사업, 24조 1,000억 원 규모로 추진됐다.

이 가운데 일부 R&D 및 인프라 사업

은 주요 성과가 나타나거나 단계별 준공이 이루어졌으며 11개는 공사 진행 중이고, 나머지 사업도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착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성과가 나타나거나 단계별 준공이 이루어진 사업은 ▲국도 위험구간 정비 ▲전북 상용차 산업혁신(R&D) ▲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 등 5개다.

공사 진행 중인 사업은 ▲평택-오송 북북선화 ▲도봉산-포천선 ▲영종-신도 평화도로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전남 서남해안 관광도로 ▲경북 동해선 전철화 ▲울산 산재전문공공병원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제주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전남 수산식품 수출단 등 11개다.

행정절차 중인 사업으로는 ▲새만금

국제공항 ▲강원 제2경춘 국도 ▲충남 석문산단 인입철도 ▲세종-청주 고속도로 ▲경남 남부내륙철도 ▲대구산업선 ▲울산외곽순환도로다.

새만금국제공항과 유사한 대형 교통 인프라 사업들의 진행 현황을 보면, 대부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12.8km)는 부산신항과 주변 고속도로(중앙선, 남해선)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올해 착공됐다. 세종-청주 고속도로(19.4km)는 올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충남 석문산단 인입철도(31km)는 노선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진행 중이나, 2026

지니포럼 ‘세미나·토크콘’ 개최
금융기관 취업상담부스 등 운영

전북도가 26일 전주대학교에서 제6회 지니포럼(GENIE Forum) 연계행사로 ‘전북 금융산업발전 세미나’와 도민 대상 금융토크콘서트 ‘지니톡톡(TalkTalk)’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환경에서 금융특화도시로의 전환 전략을 모색하고 도민에게 실용적인 금융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전북자치도와 한국재무관리학회는 공동으로 ‘자산운용 중심 금융특화도시 조성’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및 금융생태계 육성전략’을 주제로 전북 금융산업발전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학계·산업계·공공기관 전문가들이 금융 공공기관 이전 방안, 리츠(REITs) 활용 전략, 금융중심지 지정 추진 현황과 과제 등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지니TalkTalk’에서는 ‘엠블리’로 유명한 LS증권 염승환 이사과 신한은행 오건영 팀장이 강연에 나섰다. 염 이사는 ‘다가을 100세 시대, 장수를 위한 금융 지식 쌓기’를 주제로 장기 자산배분 전략과 금융상품 활용법을 소개했다. 오 팀장은 ‘트럼프 2.0 시대, 고변동성

에서 살아남기’를 내용으로 글로벌 경제 변동성 대응 투자 전략을 제시했다.

200여 명의 도민과 청년이 참석한 질의응답 시간에는 금리 전망부터 개인 포트폴리오 구성까지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 행사장 외부에서는 금융기관 취업 상담 부스를 운영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제공했다.

전북자치도는 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운명”이라는 국정철학과 지역공약에 반영된 자산운용 중심 금융특화도시 조성이 맞물린 지금을 금융중심지 지정 추진의 최적 타이밍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동안 전북은 금융혁신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핀테크 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해 왔다. 지난 8월에는 전국 최초로 전북혁신도시와 만성지구 일대 26만 평 규모의 핀테크육성지구를 조성해 관련 기업들의 집적화 및 관리 기반을 구축했다. 해외 자산운용사 유치, 국제금융컨퍼런스 운영, 도민 금융 교육 등을 통해 금융중심지로의 인프라도 다져왔다.

도는 이번 세미나와 토크콘서트를 통해 공공기관 이전 방안과 전북 특화 금융산업 육성 전략을 구체화해 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로의 변화를 이끌 계획이다. /장정철 기자

새만금국제공항은 예외적이다.

8,077억 원 규모의 이 사업은 최근 기본계획 취소 판결 등 법적·행정적 리스크로 제때 착공하지 못할 위기에 직면했다.

2019년 당시 정부는 “인구가 많지 않고 공공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은 발전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의 타당성 확보에 애로가 있다”며 “공공인프라 구축 지연과 젊은 층의 인구 유출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지역의 자립적 성장을 위한 기반을 확충해 사람과 기업이 모이고 활력을 높여 지역을 살리겠다”며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의미를 부여했다.

최근 대형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경제성보다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효과가 중요하게 고려되는 추세다.

<2면에서 계속>

2025 익산

시민화합

대축전

25. 10. 01. 수
~ 10. 31. 금

익산시청
Iksan City Hall

이리시 익산군
통합 30주년

위대한 도시 GREAT IKSAN
30th

전북, 추석 전 농업재해 복구비 125억 긴급 지원

과수·채소·가축 피해 보상 집중
피해 큰 농가 상환 연기·이자 감면
경영자금 50억 추가 융자 지원

전북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상기후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을 위해 총 125억 원 규모의 농업재해 복구비를 긴급 지원한다.

지난 25일 도에 따르면 봄철 과수 이상저온, 5월 강풍·우박, 6~7월 집중호우

로 발생한 농작물·가축·스마트팜 시설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긴급 복구비를 지급한다.

이번 지원 대상은 농작물 4,947ha(축구장 6,900개 규모), 가축 6만2천 마리, 농기계·시설 217대 피해 농가다. 복구비 지원 규모는 ▲과수 이상저온 72억 원 ▲5월 강풍·우박 4억 원 ▲6월 호우 42억 원 ▲7월 호우 7억 원 등 총 125억 원이다.

피해 농가에는 피해 정도에 따라 농약대, 대파대, 가축입식비, 생계비가 지원된다.

농약대는 과수류 1ha당 306만 원, 벼·논콩 등 일반작물은 82만 원이며, 대파대는 채소류 1ha당 813만 원, 일반작물은 372만 원이 책정됐다. 농가 단위 피해율이 50% 이상인 경우 생계비도 가구당 183만 원(4인 기준) 지급된다.

도는 피해율이 30% 이상인 228농가에 대해서는 356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을 최대 2년까지 시행하고, 498농가에는 59억 원 규모의 경영자금을 추가로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강풍·우박, 집중호우 등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에게 추석 전에 복구비를 지원하게 됐다”며 “이번 지원이 피해 농가의 경영 정상화에 도움이 되고, 농업인들이 풍성한 명절을 보내는 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민제안 창구 운영

내달 31일까지 다양한 의견 수렴
도정·교육행정 개선 등 반영
행정사무감사 423회 정례회서 진행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도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다음달 31일까지 행정사무감사 도민제안 창구를 운영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번에 접수된 제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면밀히 검토한 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 활용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도민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과 행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민 제안 내용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의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 시책 및 사업에 대한 개선·건의사항 ▲예산 낭비 사례 ▲생활 속 불편사항 등이다.

다만,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거나 재판·수사 중인 사건, 인신공격·허위·비방성 내용, 익명 제안 등은 제외된다.

제안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열린의회 → 행정사무감사 도민제안)를 비롯해 방문, 우편, 이메일(sunja2847@korea.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제안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된다.

문승우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는 도민

의 삶과 밀접한 만큼 작은 목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고 경청해 내실 있는 감사를 만들어가겠다”며,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제42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장정철 기자

전북개발공사, 지역혁신 박람회 참가 도시재생 성과·거점시설 홍보 강화



도내 거점시설 연계 투어 소개
QR코드 정보 제공, 호응 높아

전북개발공사는 2025대한민국 도시·지역혁신 산업박람회에 참가, 전북자치도 도시재생사업성과와 거점시설 연계 투어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마쳤다.

올해 7회째를 맞는 2025대한민국 도시·지역혁신 산업박람회는 삼척 정라지구 도시재생사업지 내에서 지난 24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27일까지 4일간 진행됐으며 도시재생사업과 다양한 산업·기술·정책 등을 공유하고 교류하는 대표적인 홍보의 장이었다.

전북개발공사 전북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전주시 등 도내 14개 시·군 관계자들과 함께 연합부스로 홍보관

을 운영했고, 도내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거점시설 중 활발하게 운영중이며 투어프로그램에 소개할 만한 시·군별 대표 거점시설과 주변 가볼만한 곳을 연계해 소개했다.

특히 홍보리플렛 QR코드와 전북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연동, 행사기간 동안과 행사 이후에도 도내 거점시설 연계투어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제공했다.

또 전북홍보관 방문객 약 15,000명을 대상으로 도내 시·군별 대표 관광지 소개 및 전주 올림피아 유치기원 등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타 지자체 및 방문객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으며, 전북도 주요 관광지와 연계한 지역활성화 등 지역 이미지 제고를 도모했다. /장정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고발 “김민석 총리·민주당 명예훼손”



“민주당 계엄 방조” 발언에 고발
“표결 불참 이유부터 밝혀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민주당이 계엄을 방조한 의혹이 있다고 밝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민주당 이성운 의원은 이날 이재강·김동아 의원과 함께 서울경찰서를 찾아 고발장을 제출하며 “나 의원은 김민석 총리와 민주당 의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 의원은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기 전에 윤석열과의 통화 내용과 계엄해제 표결에 불참한 이유부터 밝혀야 할 것”이라며 “경찰은 나 의원의 허위사

실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나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관 앞 중앙계단에서 열린 ‘야당 말살 정치 탄압 특검 수사 규탄대회’에서 “민주당은 김민석 총리가 계엄 있기 몇 달 전부터 계엄을 운운했다”며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민주당 의원들은 미리 알았다고 하는데, 알고도 방조한 그들이 내란공범 아니냐”고 비판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고발 직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 의원은)조선 모욕 발언에 이어서 또다시 말도안되는 망언을 한 것”이라며 “나 5선의원 논리라면 임진왜란을 미리 예견하고 10만 양병론을 주장한 울국선생이 임진왜란 공범입니까?”라

전북자치도, 정책브랜드 자문단 출범

분야별 전문가 22명 위촉
도정 전략네이밍·홍보 고도화

전북도가 정책 홍보의 전문성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브랜드 자문단을 지난 26일 출범했다.

전북도는 도정 종합상황실에서 위촉식을 열고 카피라이팅, 마케팅, 디자인 등 분야별 전문가 22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자문단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며, 분기별 1회 정기회의 등을 통해 도정 홍보 현안을 자문한다.

앞으로 1년간 활동하는 자문단은 △도정 핵심 정책 브랜드 전략 △주요 정책 네이밍 및 슬로건 발굴 △정책 홍보 전략 등 전반에 대해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전

북도는 이를 통해 정책이 단발성 홍보에 그치지 않고 일관된 브랜드 가치로 이어져 도민 생활 속에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위촉된 위원들은 “전북의 미래 비전과 정책이 도민들에게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 참여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도 관계자는 위촉식에서 “정책브랜드 자문단은 도정의 브랜드 전략을 고도화하고 전북의 이미지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22명의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의 통일성과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 도민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브랜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1면에서 이어서>

실제로 영월-삼척 고속도로는 경제성(B/C) 지표가 0.27에 불과했지만 올해 1월 예타를 통과했다. 경제성이 낮더라도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효과가 인정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함을 보여준 사례다.

새만금국제공항은 애초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예타 면제를 받은 사업으로, 국가 정책적 추진 필요성을 정부가 이미 인정한 사업이다. 현 정부에서도 국정과제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균형성장 거점 육성’과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의 핵심사업으로 명시하기

경제성 낮아도 추진된 사례 존재
새만금공항, 국정과제 핵심 SOC
“지연 시 균형발전 취지 훼손”

도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동일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로 선정된 새만금국제공항이 기본계획 취소 판결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대로 착공이 늦어진다면 전북만 국가균형발전 흐름에서 뒤처지고, 도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물론 국가균형발전 본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민주당 전북도당, 지방선거 출마희망당원 역량 강화

120여명 대상 아카데미 진행
후원회 운영·회계, 스피치 등 교육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이원택)이 2026년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와 당원을 대상으로 2025 역량강화 아카데미를 진행한다.

9월 26일부터 10월 17일, 24일, 31일 매 금요일 3강씩 모두 12강이 열리며 120여명이 수강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당규 제10호(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 제27조 제4항에 ‘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받으려는 자는 성평등교육을 포함한 당내 교육연수를 1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내년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와 당원의

역량 참여 속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2025 역량강화 아카데미는 첫날 전북선거관리위원회 이슬기 주무관의 ‘후원회 운영 및 회계’, 한국어성인권교육센터 이미지 센터장의 ‘일상 속 폭력에 대해 질문하기’, 서주영 수석대변인(전 전주방송 아나운서)의 ‘마음을 얻는 스피치’ 강의를 시작으로 헌법, 인권, 정책, 재정, 소문, 선거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이원택 국회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전북의 발전은 전북의 미래를 개척하는 정치인의 어깨에 달려있다”며 “혁신, 변화, 성장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는 반박글을 올렸다.

이 의원은 또 “나경원 5선 의원은 민주당 의원을 명예를 훼손한 법적 책임

을 반드시 져야한다”며 “내란종식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라고 고발 이유를 강조했다. /서울=김영목기자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on)안전 수칙

◆자동차로 주행 시 30 이하로 서행 하세요

◇어린이의 시야를 막는 불법주정차는 절대 안돼요

◆안전띠는 생명띠! 전좌석 안전띠 착용!

◇스쿨존횡단보도 앞에선 무조건 일시정지 해 주세요



일시정지

전북중기청, 장기근속 근로자에 주택 특별공급

‘송천 아르티엠 더숲’ 6세대 확정…주거 안정 통한 장기재직 유도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전세희, 이하 전북중기청)은 중소기업에 장기근속 중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지원을 위한 주택 특별공급 추천 대상자를 모집한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제도’는 주거 안정을 통한 중소기업 장

기재직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장기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특별공급 예정인 ‘전주 송천 아르티엠 더숲’는 ㈜우경주택건설에서 시공하는 아파트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송천동1가 12-7번지 일원 일대에 건설할 예정이다. 특별공급 추천 세대수는 확정 6세대(에비 30세대)이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에 현재 재직중

인 근로자로서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해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또는 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 3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된다. 또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6개월이 경과되고 신청 주택형의 지역별 및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전북지역 거주자만 신청가능하다. 추천자 선별은 배점기준표상 고득점자 순으로 이루어지며, 중소기업 재직기

간 이외 가점요소로는 제조 소기업 또는 뿌리산업 재직, 기술·기능인력 및 자격증 보유, 수상경력, 미성년 자녀 수 등이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기한은 10월 2일 오후 6시까지이며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정혜민 기자



농협은행 전북본부, 건강한 지구 만들기 동참

진안초서 NH그린액션 실시 학생들이 교실 내 비치된 페플라 스틱 수거함에 분리배출을 실천하고, 이것을 업사이클링해 안전우산과 양말 등으로 제작 후 학교에 다시 전달된다. 진안초 학생들은 업사이클링 양말 사업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변성섭 농협 진안군지부장, 김정민 진안초등학교장, 김동관 세이브더칠드런 서부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NH그린액션’ 제23호 현판식을 갖고, 학교에 친환경 안전우산 50개와 우산거치대, 업사이클링 양말 200켤레 등을 전달했다. ‘NH그린액션’은 기후위기와 탄소배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삶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농협은행전북본부와 세이브더칠드런이 함께 실시하고 있는 전북형 환경교육 프로그램이다. /정혜민 기자

전북은행, 소외계층에 2천만원 상당 백미 나눔

지역경제 활력·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 기여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지난 26일 전북은행 본점 1층 로비에 서 2025 ‘一石二鳥 추석 나눔’ 사업 전달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북은행은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도내 사회적기업에서 구매한 물품을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은영 사무처장, 전북은행 박성훈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전북은행은 도내 사회적기업에서 구매한 2,000만원 상당의 백미(10kg)를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 61개 봉사팀이 직접 사회적 소외계층에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펼치며 나눔을 실천했다. 박성훈 부행장은 “이번 나눔 활동을 통해 고물가와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쌀값 상승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이웃들이 풍요로운 명절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마음을 나누고 진심으로 다가가는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며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북은행은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촉



진 및 판로지원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2015년부터 사회적기업에서 생산 및 판매하는 물품을 구매해 추석 나눔 봉

국토부-LX, 지하안전 및 지하정보 활용전략 모색

지하정보 포럼 개최 산·학·연·관 모여 발전 방향 논의

지하정보 체계적 활용과 지하 안전사고 예방 등 지하정보의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산·학·연·관이 모였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사장 어명소)가 주관한 ‘2025 지하정보 포럼’이 지난 25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5 K-GEO Festa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는 산·학·연·관을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해 첨단기술의 융합으로 여는 지하정보의 활용성 제고와 차세대 관리체계 구축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과 비전을 공유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국민대학교 김영록 교수는 ‘SAR(Synthetic Aperture Radar)위성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반 침하 발생 예측 및 조기 대응’, 울포랜드 최근호 전무는 ‘LLM+RAG 아키텍처 기반 GeoAI 활용방안 지하를 읽는 인공지능’, 메타지아이에스 고광철 부사장은 ‘데이터 기반 차세대 지하공간통합관리 체계 구축 및 활용 방안’ 등 지하정보의 활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좌담에서는 전주대학교 김일 교수를 좌장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이지영 교수,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이원영 팀장, 국토안전관리원 김홍균 부장, ICTWAY 정진영 본부장이 참여해 지하정보 현재 활용 성과와 향후 발전 가능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국토교통부 안수진 공간정보진흥과장은 “국토교통부는 지하정보의 정확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제안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할

것”이라며 “앞으로 최첨단 기술을 지하 안전관리와 접목해 지하정보 활용 확대와 관련 제도를 정비해 안전한 지하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LX공사 심병섭 공간정보본부장은 “LX공사는 지하정보 전담기관으로서 지하공간통합지도의 구축과 지하정보



정확도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첨단 기술과 제도가 결합된 차세대 지하정보 관리 전략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지하공간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전북TP ‘장수 트레일레이스’ 참여기업 판로개척

2만여 잠재고객 대상 프로모션 등 적극 지원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규택)는 지난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에서 열린 ‘2025 장수 트레일레이스’ 현장에서 ‘2025년 장수군 시군구연구산업육성사업’ 참여기업들과 함께 판촉·홍보 행사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장수군과 ㈜락앤런이 공동 주최하고, 전북테크노파크와 캠퍼스종합기술원이 지원하는 이번 행사는 장수종합경기장을 중심으로 4일간 진행됐다. 기업들에게는 현장 참가자, 관람객, 대회 SNS 팔로워 등 2만여 명의 잠재고객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2022년 첫 개최 이후로 매년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장수 트레일레이스는 국내 최장 거리의 대표 트레일러닝 대회이다. 장수군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한 코스와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을 추구하는 MZ세대에게 각광받는 스포츠 이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판촉행사에서는 장수 지역에서 생산되는 레드푸드(사과, 오미자, 토마토 등)를 활용한 농식품, 전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한 제품이 소개됐다. 전북테크노파크 관계자는 “기업들이 단순한 전시를 넘어 직접 고객과 만나는 판촉의 장으로 활용함으로써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신규 판로 개

척에 도움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 대표 행사와의 연계를 통해 연구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군구 연구산업육성사업은 지역 내 산업 생태계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북도, 장수군이 지원하고 전북테크노파크가 주관해 운영하는 지역산업 육성 프로그램이다. /정혜민 기자



전북 기업사랑 도민회 건강 관련 리더스 포럼 성료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사랑도민회(회장 윤방섭)은 회원기업 사시진작을 위한 건강관련 리더스 4차 포럼을 지난 23일 실시했다. 회원 40여명이 참석한 이날 포럼에는 대한물리치료사 협회 양영식 회장이 강사로 나와 평소 건강관리 노하우와 치료법등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직원들이 건강해야 사업도 성공할 수 있다며 기업경기도 좋지 않은데 건강마저 잃으면 사업도 어려워 질 수밖에 없는 만큼, 오늘 강의와 실습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기업사랑도민회는 매월 포럼을 개최해 회원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의에 적절한 강의주제들을 선별해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정혜민 기자

전북도-농협, ‘양파’ 선제적 수급 안정 총력

수급조절 체계 구축을 중점적으로 정보교류하고 선제적 수급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펼쳤다. 이번 워크숍은 △의무자조금 운영 및 성과 △양파 육묘관리, 정식포 준비 및 생리장해 △양파 재배면적 및 경작신고 요령 △농우바이오 양파 품종 소개 순으로 진행 됐다. 전북농협 이정환 본부장은 “사전 수급조절 홍보와 교육, 수급 관련 자료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 재배면적을 관리하고 정확한 생산 정보에 의한 선제적 수급대책을 마련해 양파 가격의 안정과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전북농협, 서울정원박람회서 ‘농심천심운동’ 홍보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도 아울러 행사현장에서는 관람객들에게 사인머스켓, 고구마, 소금의 건강효능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농심천심 퀴즈이벤트를 함께 진행해 참여도를 높였다. 이를 통해 지역농산물의 가치를 알리고 올바른 식생활 문화 확산에도 힘썼다. 이정환 본부장은 “농심천심은 신도불이(우리농산물 애용)와 농도불이(도농교류) 운동을 계승·발전했다”며 “이번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서울시민들에게 전북 농산물을 직접 소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이다. 전북 농업인의 땀과 정성이 담긴 농산물이 서울 시민 밥상에 건강과 신뢰를 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군산 자원봉사자 축제 한마당 ‘2025 한마음대회’ 성황

군산시가 주최하고 (사)군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황진)가 주관한 ‘2025 군산시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가 지난 27일 군산 월명실내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군산시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는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하고 상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격년제로 개최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군산지역 자원봉사단체 회원과 개인 봉사자 등 350여 명이 참석해 나눔과 소통의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히 올해는 자원봉사자들의 재충전과 자기전진을 위해 태아트컴퍼니 어린이무용단의 K-팝 댄스 공연을 시작으로 내빈 인사말과 명랑운동회,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참여한 장기자랑 무대(악기·댄스·노래 공연) 등이 이어졌다.

아울러 행사에 함께한 주요 인사들은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며 의미를 더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축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를 위해 기꺼이 헌신해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 덕분에 군산이 더욱 따뜻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여러분도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며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황진 (사)군산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각자의 자리에서 꾸준히 봉사의 손길을 이어주신 덕분에 군산이 더 행복한 도시가 되고 있다. 앞으로도 자원봉사자들이 든든히 의지하고 함께 성장하는 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수인성 감염병 예방 ‘총력’…명절 음식 보관 주의

정읍시보건소가 추석 연휴 기간 가족 모임 증가와 높은 기온으로 감염병 발생 위험이 높으며 시민들에게 철저한 위생 관리와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보건소에 따르면 수인성 및 식품매개 감염병은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 등으로 발생하며, 주요 증상은 설사, 복통, 구토, 발열 등이다.

특히 명절 음식은 장시간 상온 보관이나 부주의한 조리·보관 과정에서 위생관리가 미흡할 경우 쉽게 감염병이 전파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연휴 기간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비상근무 체계를 운영하고 24시간 비상 연락망을 유지한다. 또한 시민들에게 손 씻기와 음식 보관 등 기본적인 위생 수칙을 지켜 줄 것을 강조했다.

예방 수칙은 식식사 전·후 30초 이상 손 씻기 △음식을 충분히 익혀 먹기 △조리된 음식은 2시간 이내 냉장 보관하기 △조리 도구 철저히 소독하기 등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추석 연휴 동안은 많은 사람이 모여 음식을 나누는 만큼 위생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시민 모두가 예방 수칙을 실천해 안전하고 건강한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내달 5~8일 ‘120 생활민원 상황실’ 운영

군산시가 다가오는 추석 연휴 기간인 10월 5일부터 10월 8일까지 4일간 ‘120 생활민원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도로·교통·수도·하수·청소·보건·환경·식품 등 8개 분야 60여 명으로 구성된 비상 근무반도 특별 편성하고 있다.

시는 이들을 통해 긴급 도로 보수, 불법주정차 차량 지도 단속, 긴급 상·하수도 보수, 쓰레기 처리 등을 실시해 연휴 기간 발생하는 주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일반전화 120, 핸드폰 063-120으로 민원을 신청하면 종합상황실 근무자가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접수 처리하며, 연휴 동안 운영하는 병·의원, 보건소, 약국, 음식점 등 생활 정보도 안내할 예정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 신흥공원 보행교, 개통 ‘코앞’

274m 보행 전용 교량 야간 경관 조명 설치 도심 속야경 명소 기대

익산시 중앙체육공원과 신흥저수지를 바로 연결하는 ‘신흥공원 보행교’가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26일 익산시에 따르면 공사 막바지 단계인 ‘신흥공원 보행교’가 익산 천만송이국화축제를 앞두고 오는 10월 14일 전면 개방된다.

보행교가 개통되면 중앙체육공원과 신흥공원 일대를 하나의 산책·여가 공간으로 연결해 즐길 수 있게된다.

그동안 중앙체육공원과 신흥공원은 사이에 둔 큰 도로(선화로)로 인해 단절돼 있었다.

이 때문에 중앙체육공원과 신흥공원을 오가기 위해서는 도로를 횡단해야 하는 불편과 안전 우려 등의 불편이 있어왔다.

이에 시는 도심 속 산책로 연계를 위해 지난해부터 ‘신흥공원 보행교’ 건설 사업을 본격 추진해 왔다. 보행교는 총 길이 274m, 폭 2.5~5m 규모다.

신흥공원 보행교는 도로로부터 5m 위로 떨어져 있다. 안전성과 쾌적함을 더하기 위해 법정 최소 기준인 4.5m를



익산시 중앙체육공원과 신흥저수지를 바로 연결하는 ‘신흥공원 보행교’가 모습을 드러냈다. <사진=익산시>

0.5m 넘긴 높이로 설치됐다.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내진 설계가 적용됐으며, 1㎡당 성인 5명(약 500kg)이 동시에 올라서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강도를 확보해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이동 약자를 배려해 완만한 경사로를 설계한 점이 눈에 띈다.

신흥공원은 익산시 대표 수변공간으로 사계절 꽃밭과 시민참여 정원 가꾸기 등으로 사랑받아 왔다.

이번 보행교 개통으로 중앙체육공원과 신흥공원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산책로와 여가 공간의 활용도도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앞으로 시는 보행교에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해, 신흥공원 일대를 도심 속 야경 명소로 육성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오는 10월 14일 익산문화원 앞 광장에서 신흥공원 보행교 개통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신흥공원 보행교는 단순한 육교가 아니라 시민과 자연을 잇는 가교”라며 “시민과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원을 이용해 새로운 익산의 상징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 지황 가공상품, 해외 수출 ‘첫발’

지황차·쌍화시리얼 등 10여 종 LA 시장 진출

정읍의 대표 특산물인 지황이 가공상품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며 해외 판로 개척의 첫발을 내디뎠다.

정읍시는 지난 26일 오전 9시 감곡문화체육센터에서 ‘정읍 지황 가공상품 해외수출 기념행사’를 열고, 정읍지황의 우수성을 알리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정읍지황을 활용한 가공상품의 미국 LA 수출을 기념하고, 지역 농특산물의 인지도 제고와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다지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에는 유호연 부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 가공업체,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 관계자 등 10명이 참석해 수출 계획과 기대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해외시장 확대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수출 규모는 약 1억 7000만원으로, 지황차와 숙지황 현미발, 숙지황 현미스낵, 정읍쌍화차, 쌍화시리얼, 쌍화누룽지 등 10여 종의 가공상품이 포함됐다. 정읍지황 국외 판촉홍보를 위한 이번 수출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일환이다.

지황은 예로부터 귀한 약재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정읍지황은 조선시대에는 임금께 진상됐다는 역사적 기록이 전해질 정도로 가치가 높아, 오늘날에도 약용과 가공 활용가치가 큰 특산물로 자리 잡고 있다.

유호연 부시장은 “정읍지황은 약재적 가치뿐 아니라 가공상품으로서도 세계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췄다”며 “앞으로도 품질 고도화와 해외 판로 개척을 통해 정읍지황을 비롯한 지역 농특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제63회 군산시민의 날’ 시민 화합·단합 도모

타운홀미팅서 시장과 시민 즉석 문답도

군산시가 지난 26일 시청 대강당에서 제63회 군산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함께 만든 변화, 군산시민의 힘으로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군산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군산시민의 화합과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63회 군산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1부 기념식, 2부 시민과 함께하는 타운홀미팅 그리고 부대행사로 OMG(Oh My Gunsan) 정책홍보부스 등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소통의 장으로 꾸며졌다.

이날 기념식은 1부 기념식, 2부 시민과 함께하는 타운홀미팅 그리고 부대행사로 OMG(Oh My Gunsan) 정책홍보부스 등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소통의 장으로 꾸며졌다.

이날 기념식은 1부 기념식, 2부 시민과 함께하는 타운홀미팅은 시장과 시민의 열띤 즉석 문답이 이어졌다. 지역 경제살리기, 문화·관광 활

졌다. 1부 기념행사는 팜파라 가수팀 펜타보체가 시민들과 함께 ‘군산시민의 노래’를 부르며 환상적인 하모니를 선사하며 시작했다.

이어 시민 인터뷰 형식으로 이루어진 군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변화하는 미래를 담은 기념영상 ‘함께 만든 변화, 군산시민의 힘으로 미래를 열다’가 상영돼 행사장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영상이 끝난 뒤에는 군산시민현장 낭독, 군산시민의 장과 모범시민상 시상식, 기념사, 군산시민의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2부 시민과 함께하는 타운홀미팅은 시장과 시민의 열띤 즉석 문답이 이어졌다. 지역 경제살리기, 문화·관광 활

성화 그리고 지역현안 총 3분야를 놓고 시민들은 궁금한 점을 자유롭게 질문했으며, 강임준 시장은 매 질문마다 솔직하고 허심탄회하게 답변했다.

특히 네이버포로 사진 접수된 시민들의 건의 사항과 현장에서 벌어진 질의 응답은 민관이 함께 만든 양질의 정책 대화라는 성과와 함께 진솔한 소통의 폭을 넓혔다.

강임준 시장은 “군산시민의 날은 군산의 과거와 현재를 함께해주신 군산시민이 주인공인 날로 그 노고에 감사와 존경을 전하는 뜻깊은 날”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맞춰 그 뜻을 시장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시민 아이디어 시정에 담는다

내달 20일까지 5개 분야 시정발전 아이디어 접수

익산시가 시정발전을 위해 시민들의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한다.

익산시는 ‘2025년 시정발전 아이디어 공모전’을 오늘부터 10월 20일까지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공모 분야는 시민구·경제 △문화·관광 △복지·교육 △환경·건설 △공무원

제한 등 5개로, 익산 발전에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아이디어는 기획예산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우편(kja6334@korea.kr)으로 10월 20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하면 된다. 공모 참가자 중 10명을 추첨해 소정의 상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익산시는 접수된 아이디어에 대해 소관 부서 검토와 두 차례 심사를 거쳐 우수 제안을 선정할 예정이다. 심사 기준은 창의성, 경제성, 적용 범위 등이며, 심사 결과는 오는 12월 발표한다. 우수

제안자에게는 최대 2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기획예산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고, 익산시 발전의 동력이 될 빛나는 아이디어를 찾고자 공모전을 진행한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추석 연휴 비상진료체계 가동

내달 3일~9일까지

정읍시가 10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보건소·의료기관·약국 141개소와 함께 추석 연휴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한다. 시는 명절 기간 의료공백을 막고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2025년 추석 명절 비상진료대책’에는 보건기관 12개소(보건소 1곳, 보건진료소 11곳), 정읍아산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 89개소, 약국 40개소가 참여한다.

특히 정읍아산병원은 지역응급의료센터로서 연휴 내내 24시간 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운영된다.

이와 함께 각 보건기관과 지정 의료기관은 일자별 비상진료를 실시하고, 휴일지킴이약국 40개소도 지정 운영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는 보건소에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해 당직 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을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운영 여부를 점검한다. 이를 통해 비상진료가 차질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을 철저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비상진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 정보는 정읍시보건소, 보건복지콜센터, 응급의료정보센터(www.e-gen.or.kr),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을 통해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2025년 벼농사 종합 평가회’ 개최

재배기간 문제점 사례별 분석

군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는 지난 25일 3개 벼농사 시범사업 단지·쌀 채종포단지·선도농업인·농업인상담소장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벼농사 종합 평가회’를 농업인평생학습센터 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평가회에서는 기술보급과 현장출장을 통해 직접 조사한 육묘 및 물관리 문제 사례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구체적인 문제 상황과 해결법을 소개받으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이었다고 평가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논제’ 보존·활용 방안 모색

정읍시가 고대 저수지 ‘논제’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보존·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학술대회를 열었다.

정읍시 주최, (재)전북문화유산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익산 황동제, 김제 벽골제와 함께 호남 삼호(三湖)로 불렸던 논제의 역사적 의미를 살피고, 보존·정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술대회는 최완규 원광대학교 명예교수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진행됐

다. 권순강 건축문화연구소 여지 소장은 ‘제방 형식과 관계 방법’을, 박세웅(㈜동원건축사사무소 실장)은 ‘보존 전 시 및 정비 활용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이학수 시장은 “논제는 정읍의 농업과 공동체를 지탱해온 소중한 역사문화유산”이라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제시된 성과와 의견을 바탕으로 보존과 활용 전략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차기 시금고 1금고에 농협은행 선정

2금고 전북은행…4년간 관리

익산시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시 자금을 관리할 차기 시금고로 1금고에 농협은행, 2금고에 전북은행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선정된 두 은행은 앞으로 4년간 세입금 수납과 세출금 지출은 물론 각종 기금 등 익산시 자금을 보관·관리한다.

1금고 농협은행은 2025년 분예산 기준 1조 6,545억 원 규모의 일반회계와 고흥사랑기금을, 2금고 전북은행은 1,918억 원 규모의 7개 특별회계와 8개 기금을 맡게 된다.

시는 오는 12월 31일자로 기존 금고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협의한 후 금고 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순창군 가족센터 개관 ‘전 세대 사랑방’

군민 복지·교육·문화거점 마련
생활SOC 선정 후 5년 걸쳐 완성
도서관·공동육아·상담 공간 집약

‘순창군 가족센터’가 지난 26일 개관식을 갖고 공식 문을 열었다.

가족센터는 아동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복지·교육·문화의 거점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 친화적 공동체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2019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선정된 이후 2020년 2월 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약 5년간의 과정을 거쳐 완공됐다.

센터는 총별로 기능을 특화해 운영된다. 1층에는 작은도서관, 공동육아나눔터, 가족 소통 교류 공간이 마련돼 교육과 돌봄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국가 지정 문화재인 충신리 석장승(제101호, 남)과 남계리 석장승(제102호, 여)이 전



‘순창군 가족센터’가 지난 26일 개관식을 갖고 공식 문을 열었다. <사진=순창군>

시대 역사·문화적 가치를 더했다.

2층은 가족센터 사무공간, 교육실, 상담실을 집약 배치해 복지와 상담 기능을 한곳에서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군민들의 생활 안정과 심리적 안정을 돕고, 전문 상담을 통한 문제 해결과 정서적 지원까지 가능한 종합 복지 공간으로 활용된다.

3층은 그동안 여성회관, 노인복지회

관, 육천미술관 등에 분산되어 있던 군민 사회교육 기능을 통합했다. 생활양재, 광목자수, 사군자 등 11개 강좌가 운영될 예정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가족센터는 세대를 아우르는 군민 모두의 사랑방이자, 가족에게 힘과 위로를 전하는 든든한 중심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국가공간정보 발전 유공 ‘국토부장관상’

고정밀수치지형도·디지털지도 구축
국비 10억 확보 첨단 지도사업 확장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5년 K-Geo 페스타에서 국가공간정보 발전 유공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남원시는 공간정보 기반 정책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국가 공간정보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으며, 특히 기초행정

구역 공간정보 구축사업, 고정밀 수치지형도 제작사업, 시각장애인의 손끝 문화탐방 디지털 지도 구축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해 활용 가치가 높은 공간정보 구축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최근 국토지리정보원 주관 2026년 고정밀 전자지도 쉐린지 공모 사업에도 최종 선정되어 국비 10억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앞으로도

첨단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정책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국토부장관상 수상은 남원시 공간정보 정책의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간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 경쟁력 강화와 시민 행복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삼례 체류형관광 ‘배케이션’ 성공적 첫 발

‘배움+휴식’ 체류형관광 프로젝트
인플루언서 15명 초청 첫 시범운영

완주군이 최근 1박2일 일정으로 ‘삼례 너머로, 배케이션(배움+휴식) 투어’를 큰 관심과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번 투어는 전북특별자치도 명품관광지 조성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추진되는 4개년(2025~2028) 체류형관광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스테이 삼례’라는 슬로건 하에 기획됐다.

첫 회차에는 구독자 50만명 규모 유튜브를 비롯한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15명이 참여해 삼례만의 자연과 문화, 역사 속에서 특별한 배움과 휴식의 시간을 가졌다.

첫째 날, 참가자들은 삼례문화예술촌, 삼례책마을, 비비정 등 삼례 주요 관광거점을 삼례 이야기꾼의 재미난 해설과 함께 둘러봤다. 이어 삼례 브랜드 창작공간 ‘한방울의 비밀’을 막걸리 테마 석식과 함께 즐기며 삼례의 역사와 문화, 먹거리를 체험했다.

둘째 날 아침에는 삼례문화예술촌 잔디마당에서 싱잉볼 요가 명상으로 몸



완주군이 최근 1박2일 일정으로 ‘삼례 너머로, 배케이션(배움+휴식) 투어’를 큰 관심과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사진=완주군>

과 마음의 균형을 다진 뒤, 삼례 대표 맛집을 방문하며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투어 전반을 통해 배움과 힐링을 동시에 경험하며 삼례의 매력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적극적으로 공유했다.

참가자 중 한 인플루언서는 “배움과 힐링이 함께하는 이번 투어는 일상에 큰 영감을 주었으며, 새롭게 만나는 삼례를 많은 분께 추천하고 싶다”고 만족감을 전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삼례문화예술

촌 일원이 단순 지나치는 관광지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체류형관광지로 도약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며 “앞으로도 삼례만의 역사와 자연, 문화가 어우러진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완주군은 이번 시범운영에서 얻은 의견을 반영해 오는 10월부터 11월까지 총 5차례 일반인 대상 투어를 모집할 예정이며, 참가신청 및 관련문의는 완주군 문화여사과 문화마케팅(063-290-3861)에서 가능하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 바이오단지 입주기업, 해외수출 본격 시동

(주)원스킨화장품 첫 물량 20만불
26일 베트남수출 선적식 개최

남원시는 지난 26일 노암산업단지내에 소재한 남원 바이오산업특화단지에서 입주기업인 (주)원스킨화장품의 베트남 수출 선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원스킨화장품(대표 김경희)은 바이오산업특화단지 입주기업으로 그동안 남원시와 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추진한 수출지원 등 기업지원 사업을 지원받아 2025년부터 2030년까지 660만 달러(한화 92억원) 규모의 수출성과를 내며 성장한 남원의 대표적 바이오 뷰티 기업이다.

이번 선적식은 첫 수출 물량으로 20만 달러(한화 2억 8천만원) 규모의 제품을 수출하는 의미있는 행사이다. (주)원스킨화장품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미국, 멕시코, 두바이, 브라질 등 해외 여러시장으로 수출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남원시는 이번 수출 성과가 지역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은 물론, 남원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세계 뷰티시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수출액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화장품 수출 규모는 55억 달러(한화 7조5천억원) 규모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남원시는 이러한 세계시장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중앙정부의 지원사업을 통해 남원 바이오기업이 해외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남원시는 이번 성과를 계기로 바이오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적극 지원하고 남원 바이오산업특화단지를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뷰티산업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스쿨튜브’ 개국 AI 미래교육 새 지평

개국방송서 시토폰 모델 선택
학부모, 콘텐츠 기획제작 참여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센터장 임성희)가 교육발전특구사업의 일환으로 학부모 AI 실무자 양성 과정 교육생들과 함께 ‘완주군 스쿨튜브’를 공식 개국했다.

지난 25일 열린 개국 방송은 ‘지역인재육성에서, 지역정주까지, 완주를 디자인하다’를 주제로 진행돼 큰 관심을 모았다.

이날 방송에는 유희태 완주군수, 학부모 패널, 그리고 AI 패널이 함께 참여해 인간과 AI가 협업하는 새로운 형태의 정책토론 모델을 선보였다. AI는 완주군의 10만 완주시대 개막,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유치, 교육발전특구를 통한 교육 인프라 확충, 피자컬 AI 선도도시 육성 등 주요 정책을 분석하

며 토론의 깊이를 더했다.

‘완주군 스쿨튜브’는 단순한 AI 활용 교육을 넘어 참여자들이 직접 콘텐츠를 기획부터 완성까지 경험하며 실질적인 ‘콘텐츠 파이프라인(Content Pipeline)’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지난 16일부터 진행된 교육에서 학부모들은 방송 설계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Prompt Engineering) 기법을 학습하고, 이를 통해 타이틀·로고·영상 인서트 등 멀티모달(Multi-modal) 디지털 에셋을 AI로 직접 제작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시도는 AI 기술을 행정에 접목하는 ‘AI 거버넌스’의 가능성을 확인한 자리였고, 앞으로도 주민 참여와 AI 협업을 통해 완주의 미래를 함께 그려가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완주군 김재천 부의장, ‘물난리’ 봉동 낙평리 점검

반다비체육관 준공 후 상습 침수
“근본 원인 파악 항구적 대책 시급”

완주군의회 김재천 부의장이 지난 24일 봉동을 낙평리 반다비체육관 인근 침수 피해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김 부의장은 우산도 없이 장화 차림으로 논둑을 따라 걸으며 피해 상황을 꼼꼼히 살폈다. 그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경청하며 물길과 배수 상태를 직접 확인했다.

해당 지역은 약 6만3,000㎡(약 2만 평)에 달하는 광범위한 면적으로, 반

다비체육관 준공 이후 자연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집중호우 때 마다 상습 침수가 반복되고 있다.

김재천 부의장은 “군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체육관이 오히려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단기적 미봉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근본 원인을 파악해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건립 당시 사전 배수 설계와 사후 관리가 미흡했던 부분을 철저히 점검하고, 전문기관 진단, 우수처리 체계 재정비, 모니터링 구축 등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지역자활센터, 신규 자활근로 사업장 개점

청년, 중장년층 자립 발판 마련
공모 사업비 확보 리모델링 조성

남원시는 지난 26일 교통산 국민관광지(산성순환길 713)에서 자활근로사업 신규 사업장인 ‘파스쿠찌 카페’와 ‘3분마트’ 개점식을 개최했다.

이번 개점식에는 남원시장, 시의장, 시의원, 유관기관 관계자, 자활근로 참여자 등 6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다.

남원시는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 자활사업장 환경개선 지원사업 공모 사업비 5천만원을 확보해 자활사업단 매출액 등을 활용, 시설 리모델링을 통해 공간을 조성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번에 문을 여는 자활근로 사업장은 단순한 공간을 넘어, 지역 주민들에게는 생활 속 휴식과 편의를 제공하고, 자활근로 참여자에게는 자립 발판이 마련될 것이며,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전통시장 공공카트 대여 서비스 도입

이용객 불편 덜고 시장 활성화

순창군이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순창시장에 공공카트 대여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번 사업은 장보기가 불편한 고령자와 여성, 다량의 물품을 구매하는 이용객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군은 주민 친화적 정책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

공공카트 대여는 점심식 카트와 일반형 손수레를 시장 내에서 무료로 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순창시장 버스휴게실 인근에 일반 카트 30대, 손수레 30대 등 총 60대를 배치했

으며, 모든 카트에는 도난 방지를 위한 인식표와 GPS를 부착해 안전한 관리가 가능하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시장 방문객이 대여 대장에 기본 인적 사항을 기재하면 카트를 빌릴 수 있으며, 장보기를 마친 후에는 지정된 거점에 반납하면 된다. 이러한 절차는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큰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시장 상인들 역시 활기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영일 군수는 “이번 사업은 작은 아이디어이지만 군민 생활의 불편을 크게 덜어줄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이라고 밝혔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퇴거 위기 막았다” 아동 가구 임대보증금 지원

완주군 드림스타트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본부에서 추진하는 사례지원 사업에 선정되며 주거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취약계층 아동 가구에 180만 원을 지원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사례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 질병, 돌봄 부재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 아동이 건강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육, 학습,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초록우산은 지역 아동의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며 복지사 각지대 해소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돌봄 지지체계를 구축해나가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번 사례관리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인 한부모 가구로 모가 생계유지를 위해 근로활동에 열심히 참여했지만 저소득 및 부채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복지사 각지대 가구였다. 특히 임대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퇴거 위기에 놓여있었다.

완주군 드림스타트는 이번 임대보증금 지원을 통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원 발굴·연계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박기완 아동친화과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아동돌봄 사각지대 최소화 등 아동복지 안전망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 기자

순창군, 추석 앞두고 섬진강 용굴산 일대 환경정비

순창군 공무원들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귀성객과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 섬진강 용굴산 일대 환경정비에 나섰다.

군은 지난 25일 용굴산 주차장과 섬진강 전망 바위, 군락지 일원에서 “2025년 추석맞이 섬진강 환경정비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실·과·읍·면장과 팀장 등 190여 명이 참석해 하천 주변의 쓰레기와 잡풀을 제거하고 불법 투기물을 정비하는 등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참가자들은 안전 수칙을 공유한 뒤 현장별로 나뉘어 정비에 나섰으며, 섬진강 전망지 주변과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주요 구간에 집중적으로 정리했다.

군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 많은 방문객들이 찾는 용굴산과 섬진강을 깨끗하게 가꾸어 지역 이미지를 높이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지속적인 환경정비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순창=박지현 기자

지리산 허브밸리, 가을꽃 만개 체험·이벤트 다채 힐링 명소 주목

지리산 허브밸리가 삼색 국화와 오리지널 코스모스로 가득 물들며 방문객들을 맞이한다. 화려한 가을꽃 경관과 함께 다양한 체험과 이벤트를 선보이며 남원을 대표하는 가을힐링 여행지로 주목받고 있다.

허브밸리 전입광장과 원형광장에는 삼색 국화가, 4ha 규모의 오리지널 코스모스 꽃단지에는 가을 정취가 펼쳐진다. 코스모스 단지는 사진 명소로 인기를 끌며 방문객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다.

지리산 허브밸리는 꽃 경관뿐 아니라 체험과 이벤트도 풍성하다. 복합도피아와 열대식물원에서는 신종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 해설사가 열대식물원 해설투어와 계절 꽃으로 직접 식물을 심어보는 반려식물 키우기 체험을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다.

230여 종의 식물이 전시된 열대식물원은 식물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반려식물 체험은 생활 속 자연과의 소통을 돕는 인기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가을 한정 이벤트도 다채롭다. 허브밸리 내 6곳을 돌며 스탬프를 모으면 선착순 5,000명에게 메리골드 화분을 증정하는 스탬프 투어가 진행되며, 허브밸리에서 직접 재배한 로즈마리를 활용한 허브차 시음 행사도 진행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부안군여성단체협의회,
장학금 2백만원 기탁

부안군은 지난 24일 부안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5년 부안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및 한마음대회'에서 부안군여성단체협의회가 (재)부안군근농인재육성재단에 장학금 2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식에서 부안군여성단체협의회는 단체 명의로 100만원, 박양순 협의회 회장이 개인 명의로 100만원을 각각 기부하며 미래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뜻깊은 나눔을 실천했다.

부안군여성단체협의회는 관내 15개 여성단체 2,5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소 △양성평등 문화 확산 캠페인 △지역여성 역량 강화교육 △취약계층 지원 봉사활동 △환경정화 및 지역축제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펼쳐오며 지역사회의 신뢰와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지역 청소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장학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나눔과 실천'을 선도하는 모범 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부안=신상수 기자



장수골프리조트, 취약계층에
'1004박스' 300세트 기탁

장수골프리조트(대표 이용규)는 장수군 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1004박스' 300세트를 기탁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1004박스'는 사골곰탕 등 식료품과 세제·샴푸 등 생활 필수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탁 물품의 가치는 총 1천5백만 원에 이른다.

장수군은 이를 관내 취약계층 300가구에 배부해 어려운 이웃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계획이며, 필요한 가정에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기탁은 민간 기업이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뜻깊은 사례로, 어려운 시기에 이웃을 향한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며 군민들에게 큰 희망과 위로가 되고 있다.

이용규 대표는 "장수군민을 위해 꾸준한 나눔 활동을 펼치며 더 많은 사람을 지역에 환원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장수군, 제39회 9.28 향토수복 희생 호국영령 추모제 거행

승고한 희생정신 기려

장수군은 지난 26일 산서파출소 경내에서 제39회 9.28 향토수복 희생 호국영령 추모제를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최훈식 장수군수를 비롯해 황재현 장수경찰서장, 신경순 전북동부보훈지청장 등 기관·단체장과 산서면 의용소방대원 및 주민 60여 명이 참석해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렸다.

이번 추모제는 장수군 9.28 수복동지회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조

현관에는 최훈식 군수, 아현관에는 한국희 군의원, 종현관에는 황재현 장수경찰서장이 맡아 전통예법에 따라 건강하게 봉행됐다.

행사는 6.25전쟁 당시 지역주민을 지키다 순국한 고(故) 이완기 경찰관 등 15위 호국영령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996년부터 시작된 이래 올해로 39번째를 맞이한 이번 추모제는 장수군을 대표하는 호국행사로 자리매김하며 지역민의 애국심을 되새기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군 이선희 작가, 대한민국 공예품대전서 수상

출품작 '사랑채 2층장'

진안군이 운영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생이 '제55회 대한민국 공예품대전'에서 중소기업중앙회장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수상의 주인공은 진안군 평생학습 프로그램 '장인정신 깃든 전통한지 공예' 수강생인 이선희 작가로, 출품작 '사랑채 2층장'은 전통 한지를 소재로 고유 기법과 현대적 디자인을 접목해 높은 예술성과 완성도를 인정받았다.

대한민국 공예품대전은 국가유산청과 한국공예협동조합연합회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공예 경연무대로, 1971년부터 이어져 온 권위 있는 대회다.

이번 수상은 단순히 한 개인의 성취를 넘어, 군이 추진해온 평생학습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지역민이 교육을 통해 전통문화 계승과 창작 역량을 키우고, 전국 무대에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진안=전길빈 기자



테크로스환경서비스 등 고창군에 2천만원 기탁

(주)테크로스환경서비스(대표 이웅성)와 (주)이피에스솔루션(대표 박변주)이 지난 25일 고창군청을 찾아 2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기업들은 고창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을 수행하는 등 지역사회 공익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장학금 기탁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실천하는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줬다.

이웅성 대표는 "지역사회가 발

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재육성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장학금이 학생들이 학업에 정진하고, 자신의 꿈을 펼쳐가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변주 대표도 "고창군의 미래는 지역 학생들의 성장에 달려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인재 양성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임실치즈농협, 임실군에 총 2천만원 기탁

임실치즈농협(조합장 이상식)이 지역 인재 육성과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뜻깊은 기부에 나섰다.

임실치즈농협은 지난 24일 임실군 애향장학회와 임실군 불우이웃 돕기에 각각 1천만원씩 총 2천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미래 세대의 꿈과 희망을 키우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든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탁된 장학금은 임실군 학생들

의 학업 성취와 자기 계발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며,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관내 취약계층 가정의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될 예정이다.

심 민 군수는 "임실치즈농협이 매년 꾸준히 장학사업과 나눔 활동을 실천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기탁해 주신 성금은 학생들의 미래를 밝히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소중한 밑거름으로 쓰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김제신용협동조합,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합격자에 격려금 전달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24일 김제신용협동조합(이사장 백강석)이 2차 검정고시에 합격한 학교 밖 청소년 15명에게 외식상품권을 전달하며 격려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청소년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성취를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 1차 검정고시 합격자 지원에 이어 두 번째다.

시는 김제신용협동조합이 매년 김제시학교 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이유미)와 협력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 동기 강화를 위해 격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올바른 소비습관과 건전한 경제관념 형성을 위한 금융교육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백강석 이사장은 "여러 사정으로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에게도 지역사회가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가져야 한다"며 "모든 청소년이 행복하게 성장하고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익산시새마을회, 추석 맞이
선물꾸러미 300개 전달

익산시새마을회(회장 방성봉)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26일 익산시청을 방문해 선물꾸러미 300여 개를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은 정현을 익산시장과 방성봉 회장을 비롯해 홍선옥 익산시새마을부녀회장, 홍정옥 익산시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송정은 새마을문고 익산시지부장 등이 함께했다.

선물꾸러미는 불고기, 김치, 과일 등으로 구성됐으며,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읍·면·동 새마을부녀회도 자체적으로 명절 음식을 준비해 소외된 이웃에게 나눔을 이어간다.

방성봉 회장은 "회원들의 마음이 담긴 꾸러미가 이웃들에게 온기를 전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새마을회는 나눔과 봉사 정신을 실천해 행복한 공동체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나들이가 많아지는 가을

산불 예방 수칙

1.

쓰레기 소각 금지

2.

**입산 통제 구역
안내 준수**

3.

**인화성 물질
소지 금지**

4.

흡연 금지

산 초입부터 정상까지, 어디서나 지킬 사항들

〈一事一言〉



한국 극우세력은 왜 중국을 혐오하는가(1)

김태형

심리연구소 '함께' 소장

최근 한국은 도심에서 벌어지는 극우세력의 혐증시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명동관광특구협의회회는 “시위대가 특정 국가 관광객에게 폭언하고 공포감을 조성해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다”면서 “인파가 밀집된 좁은 도로에 많게는 5백 명의 시위대가 한꺼번에 지나가면서 안전사고 발생도 우려된다”고 하소연했다. 혐증 시위대는 중국과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폭언과 위협적인 행동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의 국무회의에서 혐증시위는 표현의 자유와는 무관한 껍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예전에 한국의 극우세력은 북한을 주적으로 여기며 끊임없이 반북, 혐북 분위기를 고취했다. 그 당시만 해도 한국 극우세력의 중국에 대한 반감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한국 극우세력의 첫째가는 적은 북한이 아닌 중국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이런 변화는 냉전이 해체되면서 미국이 최대의 경쟁자로 부상한 중국을 견제하고 압박하는 것을 최우선시하게 된 것과 관련이 있다.

한국의 극우세력은 원래 자생적인 정치세력이 아니다. 즉 한국의 극우세력은 서구의 극우세력처럼 자국의 독점자본에 기초하여 발생하고 성장한 정치세력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의 극우세력은 국내 독점자본이 부재한 상태에서 미국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고, 미국이 손때 묻혀 키워내고 조련해온, 철두철미한 매국

세력이다. 서구 사회의 극우세력은 자국 독점자본의 이익을 대변하기에 부르조아 민족주의 성향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과거에 독일 독점자본을 대변했던 히틀러 극우집단은 민족이나 국가를 중시하고 내세우면서 영국이나 프랑스와 전쟁을 해서 이익을 실현하려 했다. 반면에 한국의 매국적 극우세력은 단 한 번도 한국의 독점자본을 대변했던 적이 없다. 그들은 한국의 자본가계급이 아닌 미국 독점자본가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미국의 하수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미국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한국의 매국적 극우세력은 자기 이념이나 주장은 없고 미국의 정치이념이나 주장 등을 그대로 수입하고 베껴서 앵무새처럼 떠들어댄다. 미국이 북한을 적대시하면 북한을 향해 악을 쓰다가 미국이 방향을 틀어 중국을 더 적대시하면 중국을 향해 악을 쓰는 것이다. 한국 극우세력의 혐증은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반증을 수입해온 것에 불과하다.

“혐오는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이다. 그것도 자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무척이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이다.”(김종갑, 『혐오: 감정의 정치학』, 2017, 은행나무, 118쪽)라는 말이 보여주듯, 혐오는 아주 심하게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이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해로운 대상을 혐오한다. 즉 사람들은 자신에게 해롭다고 판단하는 대상에 대해 싫

다는 태도를 형성함으로써 혐오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사람에게 해로운 것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질병, 부패, 죽음이다. 이로부터 사람들은 질병과 부패, 죽음을 싫어하고 나아가 혐오하게 된다.

처음에 혐오는 사람의 육체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발생했다. 사람이 심한 악취나 상한 음식의 냄새를 맡으면 연수에 있는 구토충추가 자동적으로 구토를 유발하는데, 이때 체협하게 되는 혐오감은 해로운 것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일찍이 흄스와 데카르트는 혐오 감정이 인간의 생존과 관련되어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만일 혐오가 단지 사람의 육체적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만 한다면, 혐오가 문제 될 것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오히려 그것은 사람에게 대단히 유익한 감정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여러 원초적 감정들 혹은 기본 감정들과 마찬가지로 혐오도 사회적 차원에서 작동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혐오는 심각한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적 생명만이 아니라 사회적 생명도 있으며 따라서 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사회적인 이해관계를 갖는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적 생명만이 아니라 사회적 생명 그리고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상에 대해서 혐오감정을 체협할 수 있다. 즉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사회의 안전이나 번영을 해치는 대상에 대해서도 혐

오로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의 사회적 생명이나 사회에 해로운 대상에 대한 혐오는 육체적 생명을 위협하는 것에 대한 혐오의 사회적 확장판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의 혐오는 생물학적 혐오 - 본능적 혐오 혹은 원초적 혐오라고 할 수도 있다 - , 후자를 사회적 혐오라고 한다.

사회적 혐오는 주로 사회의 생존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대상에 대한 감정반응이다. 사회적 혐오는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상에 대한 감정반응이므로 사회가 불안해지면 불안해질수록 혐오 현상은 심해진다.

예를 들면 한국인들이 심각한 생존 위기 등으로 인해 자신과 사회의 안전이 위협당한다고 느끼는 정도가 심해질수록 이주민이나 여성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도 심해진다는 것이다. 사회적 혐오 중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혐오는 무조건 악이다. 어떤 사회가 박쥐나 돼지를 혐오한다고 해서 그것을 악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집단이든 간에 특정 집단을 혐오하는 것은 악이다.(계속)

본 칼럼은 시민언론 만들레에 기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고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설

지니포럼, 전북 금융특화도시 도약의 교두보

전북자치도가 금융특화도시 도약을 위한 지니포럼 연계 행사로 '전북 금융산업발전 세미나'와 금융토크콘서트 '지니톡톡'을 열었다. 이제 지니포럼은 단순한 지역행사를 넘어 국가균형발전과 금융중심지 도약을 모색하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환경 속에서 금융산업은 단순히 특정 지역의 산업 중 하나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다. 그간 금융의 중심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돼 왔고, 그 결과 지방은 성장 동력과 기회에서 소외돼 왔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국가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운명'이라고 천명한 것도 바로 이런 불균형 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것이다. 전북이 금융특화도시로 거듭나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번 지니포럼 세미나에서는 공공기관 이전과 금융생태계 전략, 리츠(REITs) 활용 방안, 금융중심지 지정 추진 과제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학계와 산업계, 공공기관이 머리를 맞댄 논의는 단순한 담론을 넘어 실질적 실행 전략으로 이어져야 한다. 전북혁신도시와 만성지구 일대에 조성된 26만 평 규모의 핀테크육성지구는 그 출발점이다. 이미 금융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핀테크 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한 경험을 토대로, 전북은 금융기업 집적과 관리 기반을 강화해 글로벌 자산운용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금융토크콘서트 '지니톡톡'은 도민과 청년들에게 금융 지식을 나누는 장으로서 의미가 크다. 전문가 강연과 질의응답을 통해 장기 자산관리, 글로벌

경제 변동성 대응 전략 등 실물 경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했으며, 금융기관 취업 상담 부스는 청년들에게 직접적인 기회를 열어주었다. 금융중심지로의 도약은 단순히 제도적 기반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금융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청년층의 참여가 함께할 때 비로소 금융생태계가 살아 숨쉬게 된다.

전북이 금융특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선, 공공기관 이전 전략을 현실화해야 한다. 금융 공공기관의 이전은 단순한 지역 이익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시대적 과제다. 이어, 해외 자산운용사 유치와 국제금융컨퍼런스 운영 같은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국제적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 끝으로, 도민 금융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금융이 소수 전문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생활 속 실천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지니포럼이 연례 행사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정책적 제안과 전략적 논의가 행정계획과 실행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전북은 금융특화도시로서 명확한 궤도에 오르게 될 것이다. 전북은 이미 핀테크 육성지구를 비롯해 금융혁신의 토대를 다져왔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장기적 로드맵 아래에서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집념이다.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축, 금융중심지 전북의 도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지니포럼이 그 도약의 발판이자 교두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북도와 지역사회, 학계, 산업계가 함께 지혜를 모으기를 기대한다.

문화재열전



군자정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 유적건조물, 누정
-지정일 - 1990년 6월 30일
-시대 - 조선시대
-소재지- 정읍시 고부면
영주로 532-7 (고부리)

▲오늘의시

저무는 바다를 머리맡에 걸어 두고 / 이 외수

살아 간다는 것은
저물어 간다는 것이다
슬프게도
사랑은
자주 흔들린다

어떤 인연은 노래가 되고
어떤 인연은 상처가 된다
하루에 한 번씩 바다는
저물고
노래도 상처도

무채색으로 흐리게 지워진다
나는 시린 무릎 감싸 안으며
나지막히
그대 이름을 부른다
살아 간다는 것은

오늘도
내가 혼자임을 아는 것이다

시인 약력 : 1946년 경남 함양 출생. 1964년 춘천교대를 중퇴했다. 1975년 중편 '혼장'이 신인문학

상을 수상하면서 등단했다. '겨울나기', 장편 '들개', '칼', '산목', '벽오금학도' 등을 비롯 에세이 '내 잠속에 비 내리는데', '말더

듬이의 겨울수집' 등을 간행했다. 1994년 선화(仙畵) 개인전을 개최하는 등 화가 경력도 있다. 소설 '혼장'과 '꿈꾸는 식물', 시집

으로 '풀꽃 술잔 나비' '그리움도 화석이 된다', 에세이 '내 잠 속에 비 내리는데' '날다 타조' '하악하악' 등이 있다.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25.9.29(월) 444호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00022(발간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경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시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841-7942	무주지국 010-8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앙지시 010-98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시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백지시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826-8049	
송전지시-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오늘의 뉴-스 전북타임스신문 !

광고문의 282-9601

기사제보 282-9603 구독신청 282-9600

전북타임스신문

https://www.jeonbuktimes.co.kr

세계유산축전으로 인류문명과 자연의 위대함 알린다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유네스코 7개 보물 도시’



10월 2일부터 22일까지 2025 세계유산축전 개최

‘국내유일’ 유네스코 보물 7개 보유 도시

전북 고창군을 처음 방문 하는 사람들은 고속도로 IC를 지나면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를 알리는 멋진 조형물과 마주한다. 하단에는 5개의 세계유산 엠블럼이 새겨져 있다. 조형물은 고창군의 중심인 군청 앞에도 세워져 오가는 지역주민들과 방문객이 인증샷을 찍는 포토존으로 사랑받고 있다.

고창군은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의 보물 일곱개를 보유한 국내유일의 도시다. 2000년 죽림리 일대 고인돌 447기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데 이어 2003년엔 판소리, 2014년 농악이 각각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다.

2013년에는 행정구역 전지역(671.52km²)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청정지역이다. 이어 고창갯벌이 2021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됐고, 2023년엔 고창 병바위 등 지역명소 13곳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받으면서 유네스코의 주요 자연환경 프로그램 3개 모두를 석권했다. 여기에 동학 농민혁명 무장포고문까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있다.

유네스코 유산으로 지정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이를 잘 보존해 후대에 물려주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고창군은 세계유산 일곱개를 특화한 관광산업으로 사람과 돈이 모이는 활력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주력하고 있다.

“고대 인류문명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결정체” 고인돌유적

“우리 동네에는 고인돌이 사방천지에 있었어”, “봄이면 고인돌옆에 쭉이 나고, 가을이면 쭉나던 자리에 벼싹도 나왔지”, “잡은 고기를 구워 고인돌에 상을 차려 먹기도 했어”

국내 최대 고인돌 밀집지역인 고창군 아산면 죽림리 일대 할머니들의 옛 기억들이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고인돌은 현재의 인류사적 의미를 부여하기 전 한낱 돌무덤에 불과했다.

인류문명이 발달하기 이전 고대사회에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거석문화의 중심에 고창이 있었다는 사실은 비단 대단하다는 말로는 표현하기 힘들다.

고창군은 오랜 연구를 통해 고인돌유적을 2000년 12월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했다. 규모의 방대함과 함께 탁자식, 바둑판식, 개석식 등 다양한 형태가 혼재되어 있어 거석문화 연구의 살아있는 장이 되고 있다. 또한 고인돌 축조 과정을 알 수 있게 하는 채석장은 고인돌 변천사를 규명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모래펄 흔발갯벌 한 곳에..전세계적으로 희귀한 지질생태자원 ‘고창갯벌’

고창군 십원면 앞 바다. 아름다운 해변은 바닷물이 빠지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드넓은 갯벌이 드러난다. 대바구니를 짚어진 촌로들은 희색빛 갯벌에 톱발을 심어 칠게잡이에 나서고, 아낙들은 밭을 매듯 갯벌에 쪼그려 앉아 호미로 바지락 등 조개를 캔다. 갈매기 떼는 갯벌에 숨은 먹이를 찾아 부지런히 부리를 움직인다.

‘고창갯벌’은 지형·지질학적 속성으로 급경사 암반해안을 따라 갯벌과 섬이 분포한 섬갯벌로 △해리면 모래갯벌 △십원면의 혼합갯벌 △부안면의 펄 갯벌 등 다양한 갯벌 퇴적양상을 보이고 있어 전세계적으로 희귀하다. 특히 폭풍모래 퇴적체인 셰니어(Chenier, 해안을 따라 모래 혹은 조개껍질 등이 쌓여 만들어진 언덕)가 형성된 지형·지질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철새 기착지 등 생물다양성 보전서식지의 가치도 인정받았다.

또 고창군은 전북지역에서 유일하게 고창갯벌을 찾는 철새 ‘빨제비갈매기’를 군의 상징 새로 지정하고, 최근 열린 제62회 전북도민체육대회’의 마스코트로 활용하며 화제를 모았다.

자연과 공존, 인류의 영원한 시간 세계유산축전

국가유산청,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주최하고 국가유산진흥원과 고창군 세계유산보존협회가 주관하는 ‘2025 세계유산축전



고창 고인돌·갯벌’이 10월 2일부터 22일까지 21일간 고창 고인돌 유적과 갯벌 일원에서 열린다.

‘자연과 공존, 인류의 영원한 시간! 갯벌과 고인돌’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돌과 세계자연유산인 갯벌의 가치를 깊이 있게 전달한다.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고인돌 세움학교’와 ‘고창갯벌 탐조여행’을 꼽을 수 있다. ‘고인돌 세움학교’는 학교 수업 형태의 현장 체험 프로그램으로 고인돌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수업 완료시에는 졸업장까지 받을 수 있다.

‘고창갯벌 탐조여행’은 전기차 탐방과 함께 하는 해설 탐조 프로그램으로 멸종위기 조류를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으로 꾸려진다.

이외에도 ‘숨쉬는 돌, 사계의 걸 : 특별기획전’, 준비된 의상을 입고 직접 고인돌 축조과정을 체험해보는 ‘고인돌 세움마당’, 트랙터를 타고 갯벌속으로 들어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갯벌속으로 GO! GO!’, 국제학술대회, 유적 투어, 환경 캠페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유산의 특별한 가치를 만끽할 수 있다.

/고창=백종규 기자